

상생·전시·특산품...특색 살린 '동행세일'

광주신세계, 완도멸치세트 등 사은품 발굴해 지역 농가 돕기
롯데아울렛 수완점, 내일부터 30일까지 면세점 재고품 처리
대형마트 오늘부터 동참...전통시장도 상품권 증정 등 다양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6월26일~7월12일)을 앞두고 지역 주요 유통매장들도 속속들이 행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동행'이라는 취지에 맞게 주요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은 지역 특색을 살려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동행세일 기간에 여름 정기 세일을 함께 벌이는 ㈜광주신세계는 '상생'을 위주로 행사 계획을 세웠다.

먼저 전남지역 농수축산물 직거래 상생장터를 26일부터 7월2일까지 1층 광장에서 진행한다.

고흥 석류진액골드, 영광 수산물, 해남 훈제 등갈비 등 지역 대표 6차산업 제품이 매대에 진열된다. 또 토란파이만주, 대봉꽃감, 블루베리, 숯불유과, 백세미 등 곡성 특산물도 소비자를 만난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무안·영암 등 각 시·군별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완도산 멸치 등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산지 특산물을 사은품으로 정했다.

'완도멸치 4종 세트' 외에 경북 고령과 충남 서천지역에서 난 참깨·들깨로 만든 '참기름·들기름 세트'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이들 사은품은 제휴카드도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 선착순(각 400세트)으로 준다. 26일부터는 참기름·들기름 세트를, 완도멸치 세트는 7월3일부터 받을 수 있다.

7월16~27일에는 광주 지역작가 30여명의 대표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동행, 예술가와 함께 아트·광주:20 특별전'도 진행한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26~30일 닷새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쌓인 면세점 재고품을 판매했다.

롯데쇼핑은 이 기간 동안 롯데아울렛 수완점 등 백화점·아울렛 8곳에서 롯데면세점에서 직매입한 명품과 해외패션 브랜드 제품을 판다. 재고면세품이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별전은 정부의 한시적 면세 상품 판매 허용 정책에 따라 판매가 가능해진

광주·전남 '동행세일' 참여 전통시장

광주 (22곳)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상가, 월곡시장, 남광주해뜨는시장, 무등산상가거리, 산수시장, 두암시장, 패션의거리, 양동경열로시장, 양동수산물시장, 화정동서부시장, 비야5일시장, 금남지하도상가1공구, 대인시장, 전자의거리, 건축자재의거리, 공구의거리, 자동차의거리, 양동북개상가, 양동산업용품시장,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전남 (16곳)	석곡시장, 중마시장, 목포해산물상점가, 완도시장, 함평5일시장, 해남 남미5일시장, 화순고인돌시장, 강진읍시장, 곡성기차마을시장, 목포자유시장, 녹차골보성향토시장, 순천역전시장, 우정, 아랫장, 여수수산물시장, 여수 흥국상가,

면세점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품의 교환·반품은 행사 기간에만 가능하다.

앞서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롯데면세점 명품 기획전에는 이른바 '반값 명품' 구매를 노린 수요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거나 5시간 만에 제품 70%가 동나는 등 인기가 폭발했다.

대형마트들은 동행세일에 하루 먼저 동참한다.

이마트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상품권 증정, 할인 행사를 벌인다. 2주 동안 중소 패션 협력사들의 재고 소진을 위해 '패션 브랜드 대전'을 진행하며 성인과 유아동 의류, 속옷, 신발 분야 50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참외 2봉지를 구매하면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고 신세계 포인트 회원은 인증하면 표고버섯과 제주 은갈치, 토

종 민물장어, 자연산 바닷장어 등을 30%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한다.

우선 롯데마트는 이달 25~28일 1등급 한우 전 품목을 행사 카드로 결제하는 엘포인트 회원에게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호주산 부챗살과 청정 와규 윗등심살 등이 엘포인트 회원에 대상으로 25~30% 할인 가격에 내놓는다.

광주·전남 38곳을 포함한 전국 633개 전통시장과 상점도 동행세일에 참여하며 온누리상품권 증정, 문화행사 등을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름철 와인 비수기? 대중화로 고객 잡기

롯데·이마트 등 저가 와인 판매

유통가가 연말연시에 비해 '와인 비수기'로 꼽히는 여름철을 맞아 대대적인 주류 마케팅에 들어간다.

24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와인 매출은 1년 전보다 56% 급증했다. 양주도 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이마트 주류별 매출 비중을 보면 국산맥주(22.2%)와 수입맥주(21.6%)에 이어 와인(22%)이 3위를 차지했다. 소주(15.9%), 양주(9.3%)는 4~5위로 뒤를 이었다.

이마트는 4900원짜리 칠레산 와인을 선보이며 '와인 대중화'에 나섰다.

이마트가 판매하는 주요 인기 와인 가운데 70종 가량을 현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는 3~4년 전부터 수입사와 협업해 와인 가격을 낮추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5월 일주일 동안 1000여 품목 와인 총 100만병을 시중가 대비 20~70% 할인 판매하는 와인장터도 진행했다. 김양호 광주점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에 대한 고민을 통해 트렌드에 맞는 와인 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25일 스페인 와인 '레알 푸엔테' 2종을 3000원대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최근 6000원 이하 초저가 와인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1차로 물량 40만병을 준비하고, 고객 반응을 살펴본 후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엘포인트 고객에게는 '와인 300여종'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



24일 이마트 광주점에서 고객이 와인을 고르고 있다. (이마트 제공)

사도 열린다.

편의점 이마트24는 24일부터 재고 소진될 때까지 와인 7종을 500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준비된 물량은 와인 7종 3만3200병과 '썸머세트' (1만6900원) 1500세트이다. 이마트24는 6월까지 제휴카드를 결제하면 모든 와인상품을 10% 할인해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편의점 '얼음컵'도 정기구독

이마트24 시범 판매 시작

편의점이 음료 수요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얼음컵 정기구독제도를 도입했다.

이마트24는 일정 금액을 미리 내면 얼음컵을 하루 1개씩 받을 수 있는 정기권을 시범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정기권은 7일권 2940원, 14일권 4200원으로, 얼음컵(180g) 1개당 600원임을 고려하면 30~50% 할인된 가격에 얼음컵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정기권 2종은 구매일부터 1일 1회에 한해 1~2주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상품 구매 때 정기권의 당일자 바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이마트24는 얼음컵 정기권 2종을 각 100장씩 시범 판매한 뒤 정식 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마트24는 얼음컵 외에도 이미 냉장커피와 스낵 등 자체 개발 상품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24가 올해 1월1일부터 6월18일까지 얼음컵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9% 증가했다. 6월1일부터 18일까지 매출은 지난달 대비 76.7%나 늘어났다. /백희준 기자 bhj@



여름 이불로 '꿀집' 2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이 통풍성을 높인 다양한 소재의 이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5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리플모달, 리플면, 인견, 리넨소재 여름이불을 30~5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과일도 리미티드에디션...이색과일 뜬다

이마트 신비복숭아 판매

이마트가 25일부터 '1% 희귀 복숭아'로 알려진 신비 복숭아 100t과 그린 황도 복숭아 80t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비 복숭아는 겉은 천도복숭아 같지만 속은 말랑말랑한 복숭아로, 천도복숭아 생산량 중 1%만 나오는 희귀품종이다.

그린 황도 복숭아는 8~9월에 나오는 황도를 6월에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한 신품종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6월 판매한 신비복숭아 30t은 판매 5일 만에 물량 90%가 소진되는 인기를 누린 바 있다.

이마트는 최근 과일 품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허니 토마토, 애플 토마토, 무지개 방울토마토 등 12종의 토마토를 모아 박물관 컨셉으로 스토리텔링형



그린 황도 복숭아 신비 복숭아

매장 '토마토 뮤지엄'을 운영했다. 새로운 품종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몰리면서 이마트의 4월 한달 토마토 매출은 5% 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단맛이 강한 허니 토마토는 3만팩이 넘게 팔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신비 복숭아와 그린 황도 복숭아의 물량 확보를 위해 크기가 작은 못난이 과일부터 상품(上品)까지 전량 매입하는 전략을 택했다"면서 "이마트는 과일을 시기별로 가장 맛있을 때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

www.yhbeco.co.kr